

- 2월 24일 전남 영암 대불산단 선박부품 제조 하청업체에서 아르곤 가스에 노출돼 숨진 37살 베트남 노동자 두옹 반 탄 (DUONG VAN TAN)
- 2월 28일 전남 영암 대불산단 대한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선박 블록에 깔려 숨진 35살 캄보디아 노동자 톰 소띠에 (TOEM SOTHEA)
- 3월 8일 충남 서산 오토밸리 금속제련 공장에서 지게차 충돌 후 자재에 깔려 숨진 50대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 3월 10일 경기도 이천 자갈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23살 베트남 노동자 응웬 반 뚜안 (NGUYEN VAN TUAN)
- 3월 12일 전북 부안 플랜트 공장에서 기계에 목이 끼어 숨진 24살 태국 노동자 티타완
- 3월 13일 김포 대곶면 공장 기숙사에서 아침에 숨진 채로 발견된 30대 미얀마 노동자
- 3월 17일 경북 고령군 다산면 주물공장에서 2.5t 주물에 깔려 숨진 30대 태국 노동자
- 3월 18일 울산 현대중공업 선형의장 H1셸터 맞은편 선실 블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20대 베트남 노동자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소식이 끊임없이 전해지는 가운데,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노보연도 고(故) 뚜안 님 중대재해 대응을 비롯해,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쟁취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기 총회 이후 첫 운영위가 열렸습니다. 운영위에서는 총회에서 의결한 3가지의 집중 과제 ① “개혁적 국면에서 안전보건 권리 진전을 위한 연구소의 역할 펼치기” ② “현장 활동가 네트워크 강화” ③ “다양한 회원들과 활동 참여 경로 그리기”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토론하였습니다. 주 4.5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 논의에 가려진 노동시간 불평등 문제를 드러내고 논의를 촉발하자는 점, 여성·이주·성소수자 등 특수성을 반영한 위험성 평가 등을 노동자 참여로 마련하자는 점, 작업중지권·위험성평가·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확대 등을 통해 현장 노동자들이 일상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중장기 과제 중 작년에 하지 못한 노동자 정신건강과 자살, 아프면 쉴 권리 확대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와 노동재해 없는 봄을 맞이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노보연도 지속적으로 활동해 가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동력이 되어 주실 회원 여러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 자리에서 계속 만나고 투쟁해요!